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이 남았네요. 에콰도르는 적도에 위치한 나라다 보니 일년 내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잘 느낄수 없어서 시간이 느리게 갈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네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 보면 늘 그렇듯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며 내년 사역을 계획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분주해 집니다.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동물원 방문

모처럼 아동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습니다. 센터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인근에는 갈만한 곳이 없어서 이곳 저곳 수소문하다 결국 버스를 대절해서 시내에 있는 작고 아담한 동물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동물원인데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2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나들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많이 긴장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잘 준비해서 내년엔 좀 더 나은 장소로 소풍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혜가운데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나들이였습니다.



- 싹보롱동 센터 바닥 타일 공사

지난번 소식을 전하면서 센터 바닥을 타일로 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중보기도를 나눴는데 감사하게도 시청의 도움으로 바닥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센터 건축 당시에 예산이 빠듯해서 바닥을 시멘트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 금도 가고 색도 벗겨져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주 예쁘게 타일로 마감을 하고 나니 마치 새 건물이 된 듯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바닥 공사를 마치고 나니 역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심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싹보롱동 센터 치과검진

매년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현지 치과대와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통해 치과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치과선생님들을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습니다. 이번엔 감사하게도 좋은 치과 선생님을 소개 받았는데 직접 친구 의사들을 섭외해주셔서 3분이 오셔서 대략 200명의 아동을 검사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국의 아동을 섬긴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해 하면서 기쁘게 진료를 해 주어서 저희도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누에바 프로스페리나(Nueva Prosperina)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새로운 사역지인 누에바 프로스페리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현지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저희가 바라는 사역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어서 참석하면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적을 때는 30여명에서 많을 때는 60여명의 아동들이 참석해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합니다. 제 눈에는 여러

면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들어오네요. 좀 더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의 모습과 성경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생각이 많아 집니다. 무엇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글

에콰도르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되는 것이 지진입니다. 적도라서 허리케인은 발생하지 않지만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이다 보니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가끔 발생합니다. 올 해도 진도 5.0을 넘는 지진이 3~4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법 많이 흔들렸던 지진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네요. 그래서인지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지진 소식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걱정입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는 새로운 사역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 해발 2,500미터에 위치한 꾸엔카(Cuenca)라는 도시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한국에서 기아대책의 간사님들께서 직접 오시게 됩니다. 한 가지 걱정은 둘째 하빈이가 고산 지역에 방문해야 해서 살짝 염려가 되네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1.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 되도록
2. 아동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3. 꾸엔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4. 2019년에 새로운 센터를 오픈 하는 과정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5. 하람이와 하빈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